

석유공사, 영국 석유 탐사기업 인수

FT, Dana Petroleum과 사전계약 체결 ... 프리미엄 높아 성사 미지수

석유공사가 영국계 석유탐사기업인 Dana Petroleum 인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월2일 석유공사가 Dana Petroleum과 기존 경영진 유임 등을 조건으로 사전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Dana Petroleum를 인수하려면 40%에 이르는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계약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Dana Petroleum은 2009년 기준으로 영국 북해, 이집트, 북서 아프리카 등 36개 지역에서 생산한 2억2300만 배럴 가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원유 생산량을 하루 1억3000만배럴에서 2012년 3억배럴로 늘려 자원 자급률 18%를 달성할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2009년 17억달러(약 2조740억원)를 들여 캐나다의 Harvest를 인수함으로써 자원 자급률을 6%에서 8%로 확대한 바 있으며 2010년에도 65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02>